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유두석 장성군수

"500만 관광시대 만들겠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정해년 군정 슬로건을 '열린 군정으로 도약하는 장성'으로 설정하고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과 나노산업단지조성, 전자농공단지 조성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 농업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명품 홍길동 쌀과 진원 RPC(미곡종합처리센터) 집중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공동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여기에 비교우위품목을 기반으로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조적인 농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급으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자 농업인을 많이 배출시키겠다는 각오다.

나노산단 역량 집중

유군수는 평소 더불어 사는 생활복지 실현을 강조해 왔다. 이미 초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소외되고, 그늘진 군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겠다는 것이다.

'긴급 노인 콜 센터'구축을 비롯해 다양한 결연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여성의 사회참여와 미래를 여는 청소년 육성, 보건지소·진료소 신축과 이동보건센터 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시책들이다. 특히 지난해 행정력을 집중해 유치한 노인전문병원을 착공, 노인복지시설의 선진모델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자연 친화적인 지역발전 역시 올 한해 핵심 시책중 하나다. '그린비전21 산림계획'을 수립해 특화숲, 웰빙 숲가꾸기 사업, 축령산 조림지 산림교실과 황토방 건립, 60억원 규모의 장성근린공원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양질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삼계하수종말처리장 신축, 최첨단소각시설 건립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을 가시화하고 중앙부처 연관사업과 민간유치사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홍길동테마파크 확충

또 2009년까지 진원, 남면에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전 군지역에 확대해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군수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3차 5개년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친환경 신도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광인프라 구축

광인프라 구축과 홍길동 마라톤대회 등 지역 축제를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단계 승격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에 전력을 기울이고 홍길동 테마파크,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도 확충해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고장, 장성'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긴급 노인 콜센터' 구축

보성 '녹차고추' 고소득 예약

녹차 추출액 뿌려 고추 곰팡이병 등 억제

생육도 빨라 40여농가 연소득 20억 거뜬

녹차 추출물을 이용해 재배한 보성 '녹차 고추'가 새로운 고소득 친환경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개가 자주 끼는 복내면 고추재배 농가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고추 곰팡이병 퇴치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고추 곰팡이병 치료와 예방법 연구에 착수한 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구)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하고 녹차액포가 고추생육도 촉진할 수 있는 점에 착안했다.

농업기술센터의 3년간 시험재배 결과 카테킨 등의 녹차 추출액을 고추 잎에 직접 뿌려주면 흰가루병 등 고추 재배농민들을 괴롭혀 왔던 병충해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초기 생육이 15일 정도 빨라지는 등 고품질 고추 생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본격 보급에 나서, 현재 복내면을 중심으로 40농가가 3만여평에서 녹차고추를 재배, 연간 2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녹차고추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다 과육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 일반 고추에 비해 10kg 1상자 당 4~5천원이 비싼 5만원에 거래되면서도 물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만홍(50) 농업기술센터 기술사는 "앞으로 녹차추출액을 이용한 재배기술을 딸기와 방울토마토, 버섯에까지 확대해 친환경 재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고니 도래지 위협하는 낚시꾼 진도군 군내면 덕병리 '고니 도래지'가 낚시꾼과 농약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에 따르면 둔전 저수지 일대에 매일 20~30명의 낚시꾼들이 몰려 들고 있는데다 인근에 농약을 사용하는 배추밭과 대파 밭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군, 표준정원 687명으로 늘려

인력감축·교부세 삭감 위기 벗었다

무려 138명의 정원 초과로 고민에 빠졌던 영암군이 표준정원 조정으로 공무원 감축과 교부세 삭감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영암군은 9일 "김일태 군수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 대불산단 관리 인력 정원 반영 등을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지난 해 562명이던 표준 정원이 올해 687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38명이던 초과 인력이 올해는 13명으로 크게 줄면서 인력감축과 교부세 삭감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

김일태 군수는 "대불산업단지 관리 인력의 정원 반영 등 표준정원 조정 건의가 받아 들여졌다"면서 "교부세 삭감 페널티가 사라지고 15억여 원의 인건비가 확보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표준정원 조정에 따라 일부 부서 통폐합과 대외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기구신설 등 운영의 묘를 기 할 수 있게 됐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전남 동계훈련 경제효과 155억

내달까지 58개 종목 2만여명 방문 예상

전남지역이 지난해에 이어 각종 경기종목 선수들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지역을 찾은 전지훈련 팀은 사격 국가대표팀, 요트 국가대표, 전북현대 프로축구단을 비롯한 축구, 육상, 수영, 태권도 등 모두 52개 종목 334개 팀 8천105명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양지역이 118개 팀 2천754명으로 가장 많고 해남 46개 팀 1천469명, 고흥 37개 팀 860명, 강진 240개 팀 780명, 순천 27개 팀 432명, 목포 16개 팀 370명, 여수 11개 팀 1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동계 전지훈련이 마무리되는 2월 말까지 펜싱 국가대표와 상비군, 요트 국가대표(주니어) 등을 비롯해 모두 58개 종목에 889개 팀 1만9천여명(연인원 28만1천여명)이 도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계훈련 유치 실적 1만5천여명과 비교해 26.7%가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55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전지훈련 팀이 전남지역을 많이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자연적인 여건에다 각 시·군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무료 개방, 스토브리그 개최 등 선수들의 편의를 도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담양군 노인 식사지원비 대폭삭감

군의회 "끼니 제공보다 일자리 창출 효율적"

담양군이 군 인구의 10분의 1에 가까운 노인들에게 하루 2차례 식사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가 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5만명을 넘나드는 군 인구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4천900명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키로 하고 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22억5천여만원만 확정했다.

군은 민선 4기 출범 이후 '방문요양 급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려 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1일 1식 만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자도 2천500명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읍·면을 통해 지원 희망자를 선정한 뒤 방문 급식(도시락 배달)과 경로식당 급식 대상으로 분류, 다음달 부터 식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의회가 식사 제공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저소득층이라도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촌의 특성상 쌀이 없어 밥을 못 먹는 노인은 드물다는 것이 군의회 판단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노인문제 해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아기 울음소리 커져가는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한 몫 … 출생아수 매년 증가

강진군 출생아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275명이었던 강진군 출생아수는 2005년 297명, 2006년 31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출생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군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지원제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신생아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첫째아이에게 연 120만원, 둘째아이에게 연 24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연 420만원과 계속 거주시 18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 3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전/북/소/식

AI의심 순창 오리농장 역학조사

전북 AI방역대책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의심됐던 순창군 풍산면의 한 오리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I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방역본부는 지난달 말 오리 1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이 농장의 산란율이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